

기획연구 2013-1

문화경남 향달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lture & Arts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in Gyeongsangnam-do

2013. 10

경남발전연구원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lture & Arts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in Gyeongsangnam-do

2013. 10

연구책임

한상우(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성진석(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발 간 사

현 경남도정은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방침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토대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움직임을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문화적 삶의 환경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남도는 다양한 관련 정책을 개발·실천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정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문화욕구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과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지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부분으로 경남도정에서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방침의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그 정책 실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에서 행하여 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방안은 향후 경남도의 관련 정책의 실천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도의 정책적 관심 확대를 유도하고, 문화가 하나의 중요한 주민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고 문화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데 이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 경남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속에서 문화적 혜택과 향유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접하고 문화적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본원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경남발전연구원장 김 정 권

요약 및 정책제언

I.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현 경남도정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언하고 이 도정지표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전략목표인 5대 도정방침에 ‘문화경남 창달’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이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방침을 추진할 구체적인 문화예술정책의 발굴과 실천은 현재 미진한 것이 사실임
- 이에 경남도는 소위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실천전략과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구체적인 방향을 조속히 설정해야 함. 즉,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경남의 실정에 부합하는 고유한 문화예술정책 방안을 연구·도출함이 시급히 필요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경남도에서 5대 도정방침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예술정책 전략과 추진방안을 도출·제시하여 도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코자 함에 있음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경남 지역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모두를 연구 대상(정책 적용 대상) 범위로 하며,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인 문화예술 부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우선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내용과 수행방법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현재의 다양한 정책 환경과 구체적인 정책 현황을 고찰함.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책 대상범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함.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다양

- 한 정책 환경과 최근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 문화예술정책 구상의 기본 환경을 분석함. 한편, 중앙 및 각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정책 환경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문화예술정책의 일반적인 경향과 방향을 분석함
- 제3장에서는 경남지역 문화예술 및 관련 정책 기본현황을 심층 분석함. 먼저 경남도의 문화예술 관련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관련 구체적인 현 실태를 분석함. 이어서 현재 경남도의 문화예술 정책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함
- 제4장에서는 경남도의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먼저, 경남도정의 문화예술 부분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함. 이를 토대로 이어서 구체적인 시책방안과 관련 사업 등을 제시함
-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과 정책적 제안을 하면서 연구를 종결함
- 본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통계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함

2. 연구의 요약

- 먼저, 이 연구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을 문화예술, 문화유산관리, 문화산업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정책 범위로 설정하고 경남도의 정책 수립·집행 단위의 업무영역에 상호 부합토록 함
- 현 도정의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부분의 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가능함. 먼저, 근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크게 강조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의 진흥, 즉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경남도정의 지표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정책 비전을 ‘문화예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삶의 질 구현’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한 구체적인 3대 정책 목표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및 공공성 제고,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화,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각기 설정함
- ‘문화경남 창달’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 정책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공공성을 강화함.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기반 여건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또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에 접근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도 필요함
- 둘째, 수요자 중심의 문화 인프라시설 구축 및 운영 합리화를 추진함. 지역 문화 인프라 시설의 경우, 복합 기능을 가지는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의 확충 그리고 소규모 전문 발표공간 확충 등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다양한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강화 등 운영의 합리화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을 제고함. 문화예술인의 복지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산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대로 나타남
- 넷째,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및 세계화를 추진함.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산업적 측면에서 큰 가용자원인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통해 가치를 재창조하고, 그 가치를 널리 보급하고 홍보하여 세계화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브랜드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음
- 다섯째, 지역 특화 문화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을 추진함.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할 때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을 인정하고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특화된 문화산업 영역을 집중 육성하여 비 수도권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함
- 주요 시책과 관련 추진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 참여형·생활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주민들이 항상 문화예술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위 ‘문화공공성’ 제고를 위해 주민 참여형·생활형문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함
- 이를 위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도시재생 및 도시 경관과 연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실시, 아마추어 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각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많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함

○둘째,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 개선 강화. 전문예술가로서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급 및 각종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

○이를 위해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함.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의 기업메세나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남소재 기업 또는 경남과 연고가 있는 출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과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참여·지원하도록 유도함

○셋째, 문화나눔 사업 확대. 문화복지의 향상과 문화공공성 제고를 위해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의 확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수급 대상 및 사업 내용 확대를 고려해야 함

○한편,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 노력이 요구됨.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등 문화소외지역의 필요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경남도립예술단 창단, 각종 순회문화예술 활동의 강화 등 문화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각종 공연·전시활동 전개와 이를 위한 전문단체를 육성함

○넷째,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서는 세대별·계층별로 요구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노년층의 여가선용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꾀함

○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역시 큰 중요성을 가짐. 다문화문화예술관 건립,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해야 함

○다섯째,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강화. 문화예술교육 내용의 다양성 확보

와 주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보완과 체계적인 운영에 큰 관심이 필요함.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추진, 베이비붐세대 및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경남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다양한 관련 정책사업을 마련함

- 여섯째, 문화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확보 및 운영 활성화. 지역 문예회관의 경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임. 전문인력의 보강 및 경영합리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기획·도입하여 문화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함
- 주민생활문화시설의 경우 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양적인 측면의 부족한 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또한, 근대문화유산이나 폐산업시설물 등의 재활용이나 전용 활용을 통한 주민 친화 문화예술공간 확보 사업 등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실시함
- 일곱째,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활용을 통한 세계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발굴,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 목록 작성 및 체계적인 학술 연구, 국내외 홍보 및 학술적 교류 강화,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존·진흥계획 수립,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및 보급 확대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함
- 또한, 경남지역 남명 선비문화 재조명·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정신문화 확립과 정신문화 브랜드로써의 남명 선비문화자원 활용을 한층 강화함
- 여덟째, 체계적인 지역 문화유산 관리 체계 구축. 근래 들어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된바와 같으며, 지역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그리고 다양한 활용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를 위해 근대문화유산 DB 구축과 근대문화유산의 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등을 추진함
- 또한, 경남지역 전통자원의 활용 및 세계화 차원에서 지역 농어업유산의 ‘국가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추진에 도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경남도와 해당 시군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함

○아홉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분야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특정 영역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특화문화산업 영역을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지역 문화산업 관련 각종 기업 활동 및 신규 창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도차원의 전문시설 가칭 ‘경남문화산업비즈니스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또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의 숨겨진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또는 지역 유형문화유산에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스토리텔링화 등을 통한 이야기거리 발굴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II. 정책제언

○첫째,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확한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됨

○둘째, 문화예술 관련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와 문화예술인 지원조례 등 중요한 정책 집행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검토하여 제정을 추진해야 함

○셋째, 경남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새로운 정책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관련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함

○넷째, 문화예술 부분 예산 확대 및 유관 기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함. 경남도의 문화예술 부분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도의 정책의 집행과 문화예술인 지원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1. 연구배경과 필요성	3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문화예술 관련 정책 현황	9
제1절 문화예술정책 정의 및 중요성	9
1. 문화예술정책 정의 및 대상범위	9
2.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	10
제2절 최근의 문화예술정책 환경 고찰	14
제3절 중앙 및 타 시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15
1. 중앙정부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기본 방향	15
2. 타 시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기본 방향	16
3. 정책 현황 시사점	19
 제3장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실태 및 정책 현황	25
제1절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기본현황	25
1.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 기본현황	25
2. 문화예술 활동·향유 실태	28
제2절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37
1. 그간의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변화 분석	37
2. 현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39
제3절 현황 시사점	42

제4장 문화경남 향달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안	49
제1절 정책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	49
1. 정책비전목표	49
2. 추진전략	49
제2절 주요 시책과 관련 추진 사업	51
1. 주민 참여영생생활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51
2.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 개선 강화	51
3. 문화나눔 사업 확대	52
4.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52
5.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 강화	53
6. 문화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확보 및 운영 활성화	53
7.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활용을 통한 세계화	54
8. 체계적인 지역 문화유산 관리 체계 구축	55
9.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분야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5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5

- 표 목 차 -

(표2-1) 문화예술의 영향 메카니즘	11
(표3-1)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기본현황	25
(표3-2) 인구 백만 명당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수	26
(표3-3) 문예회관 시도별 평균지표 현황	26
(표3-4) 경남지역 지정문화재 시군별 현황	27

- 그 림 목 차 -

(그림1-1) 연구수행 흐름도	5
(그림3-1)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예술행사	31
(그림3-2) 관람을 희망하는 예술행사	31
(그림3-3) 예술행사 관람시 애로사항	32
(그림3-4)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할 점	32
(그림3-5) 문화시설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33
(그림3-6) 창작발표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분야	34
(그림3-7) 수강 희망 예술교육	35
(그림3-8) 경남도 문화예술 부문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 (2013년도)	41
(그림4-1) '문화경남 창달' 을 위한 정책 비전 및 3대 정책 목표, 추진전략	49
(그림4-2) 추진전략 및 주요시책별 관련 추진사업	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과 필요성

현 경남도정은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언하고 이 도정지표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전략목표인 5대 도정방침에 ‘문화경남 창달’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이루기 위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문화가 가지는 영향력과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이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방침을 추진할 구체적인 문화예술정책의 발굴과 실천은 현재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남도는 소위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실천전략과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구체적인 방향을 조속히 설정해야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경남도의 문화예술 관련 제반 현황과 그간의 정책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중앙정부에서의 변화된 문화예술 여건환경과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경남의 실정에 부합하는 고유한 문화예술정책 방안을 연구·도출함이 시급히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경남도에서 5대 도정방침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예술정책 전략과 추진방안을 도출·제시하여 도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코자 함에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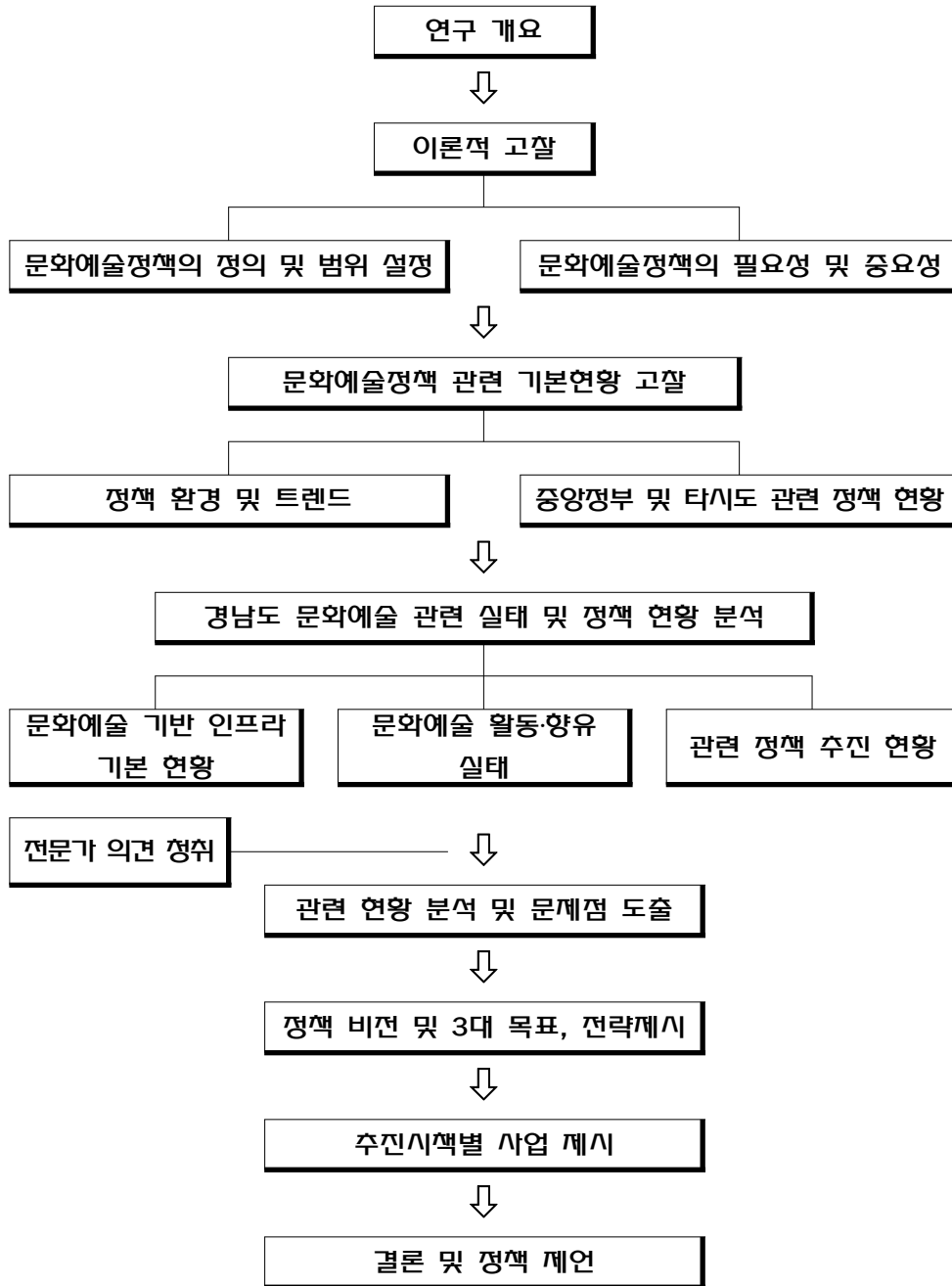
본 연구는 경남 지역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모두를 연구 대상(정책 적용 대상) 범위로 하며,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인 문화예술 부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내용과 수행방법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현재의 다양한 정책 환경

과 구체적인 정책현황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책 대상범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정한다. 또한, 이 문화예술정책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명확히 고찰한 후,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환경과 최근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 문화예술정책 구상의 기본 환경을 분석한다. 한편, 중앙 및 각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정책 환경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문화예술정책의 일반적인 경향과 방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경남지역 문화예술 및 관련 정책 기본현황을 심층 분석한다. 먼저 경남도의 문화예술 관련 기본현황을 정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 및 기타 관련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기존의 각종 관련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경남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련 각종 실태를 요약·정리하여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문화예술 향유 관련 구체적인 현 실태를 분석한다. 이어서 현재 경남도의 문화예술 정책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문화예술정책의 변화과정과 현 도정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과 방안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제4장에서는 경남도의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경남도정의 문화예술 부분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이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관련 사업 등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적 결론과 정책제안을 하면서 연구를 종결한다.

본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와 각종 통계조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전체 수행 흐름은 다음의 그림1-1과 같다.



(그림1-1) 연구수행 흐름도

제2장 문화예술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문화예술정책 정의 및 중요성

제2절 최근의 문화예술정책 환경 고찰

제3절 중앙 및 타 시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제2장 문화예술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문화예술정책 정의 및 중요성

1. 문화예술정책 정의 및 대상범위

문화예술정책이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가능하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이란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과 육성에 관련된 각종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방안을 의미 한다. 즉, 문화예술정책은 곧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문화예술정책이란 문화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공권력의 배경 하에 문화예술정책을 형성·결정하며, 이를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하는 합리적 집행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의 대상범위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양상을 모두 포괄한다.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일련의 과정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산자와 향유자들의 상호작용 전 과정이 문화예술 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를 쉽게 정의하면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결과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향유하는 향유자들의 편의제공 및 향수 만족도·기회 제고 등에 관련된 영역이 문화예술정책의 대상범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특히, 최근 문화예술정책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문화향유자의 문화예술교육이며 근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정책 범위 정의와 달리 문화예술정책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활용에 관련되는 분야와 함께 문화산업 영역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정책 영역으로 보기도 한다. 즉,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정책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 정책으로의 해석과 적용이 도차원의 정책

1)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2001. 한편, 남상문은 문화예술정책의 개념을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또는 이에 관련한 공공재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공공정책’이라고 하고 있다(남상문, 문화예술정책과 복지, 선인, 2011의 95쪽에서 인용).

실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도의 문화예술과의 업무관장 영역은 역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협의의 문화예술정책 범위보다는 문화예술, 문화유산관리, 문화산업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정책 범위로 설정하고 경남도의 정책 수립·집행 단위의 업무영역에 상호 부합토록 한다.

2.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부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윤택을 통해 삶의 질 제고를 지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또는 문화예술정책의 중요도는 경제산업 정책분야 또는 지역개발 정책분야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문화융성’ 또는 ‘문화창달’ 등 문화를 국정이나 지자체의 정책관심 분야로 크게 내세워 왔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이 사실이다. 새로운 경남도정 역시 도정지표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전략목표인 5대 도정방침에 ‘문화경남 창달’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구상이나 실천 움직임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수준 제고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 모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련된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실천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문화(예술)의 속성인 표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한다. 문화(예술)를 통해 강화된 이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커뮤니티 현안에 대한 정보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도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 형성의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퍼트넘에 의하면 개인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 및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²⁾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말한다.³⁾ 이러한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의 규범이 증진될수록 즉, 사회자본이 축적될수록 사회구성원의 소통강화와 공동체 의식의 향상 등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표2-1) 문화예술의 영향 메카니즘

	개인			커뮤니티		
	물질적/건강	인지적/심리	개인 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직접적 참여	개인 간 결속의 형성 및 건강을 개선시키는 자발성의 증진 표현과 향유 기회의 증대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층 비행의 감소	개인적 효능감과 자긍심의 증대 개인의 소속감 혹은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심의 향상 인적자본 : 기술과 창의력의 향상	개인적인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구성원들과의 협력 및 사고소통의 고양	유급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집합적 정체성과 효과성의 증대	구성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구성원들과 조직을 연계시킴으로써,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들과의 협력 등을 경험케 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증진시킴
관객으로서의 참여 ¹⁾	향유 기회의 증대 스트레스의 완화	문화자본의 증대 시·공간 추리력(visuo-spatial reasoning)의 고양 학업성취의 개선	관용성(배려심)의 증진	문화(예술) 관람과 지역사회의 사람들(관광객/방문객)의 비용지출 및 문화(예술)와 사업이 갖는 간접적 상승효과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자부심 이 형성, 그리고 다양한 표현과 자유로운 문화(예술)의 긍정적 규범의 창출	점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함

자료) 한도현,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과 공동체 발전, 경남의 주민참여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 지원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발표문, 2011에서 수정 인용함.

2) Putnam, Robert. D. 나홀로 불링, 정승현 역. 페이퍼로드, 2009, p.17 참고.

3) Putnam, Robert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Life. The American Prospect 35-42, 2003, p.36(한도현의,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 사업 효과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문화이모작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에서 재인용).

또한, 문화예술정책은 사회자본 형성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자본을 축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특정한 문화예술 활동 즉,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은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협력의 경험을 확산시킴으로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이러한 중요성을 잘 인식함에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은 소속 집단내 그리고 집단간의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하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공동체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기여한다.⁴⁾이에 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은 결국 주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형성·발전에 큰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문화발전 또는 지역경쟁력 향상을 이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복지 향상을 이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의미를 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제공한다. 문화예술정책은 생산된 문화예술을 주민들이 고루 잘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여 문화소외층 해소에 기여한다.

이는 결국 문화복지를 확대하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문화복지의 개념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에 공공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향유할 기회와 여건을 적절히 제공함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복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참고로 최근 많은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는 주민참여·주도형 문화예술 활동은 기존의 주민의 문화향유 형태가 전문집단의 문화예술 행위를 피동적으로 느끼고 즐기는 형태이었다면,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자 또는 문화예술의 창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주민의 역할전환을 가져오는 매우 유익한 수단이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잘 근접하는 문화예술 활동이다.

현재의 문화예술은 대부분 전문예술인 중심으로 전개됨에 의하여 문화예술영역이

4)한도현외,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 사업 효과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문화이모작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p.15.

소수의 전문예술가·집단만을 위한 하나의 문화자본으로서 역할 함이 현실이다. 이는 그간의 정책적 관심이 전문가 위주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와 향유라는 문화예술 지원 고정틀 속에서 이루어져 옴에 따라 문화예술이 주민의 정서와 삶, 그리고 주민 자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전유물로 나타나는 한계를 노정했다. 하지만 근래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많이 보이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부가적인 관심은 문화예술계의 기본토대를 굳건히 하고 문화예술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선순환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형성한다. 이는 결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향유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관심 증대와 특히, 이를 직접 소비하고 즐기는 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취미와 여가 활용을 위한 소일거리로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노년층의 여가 시간 활용의 문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향유 특징은 ‘배우면서 즐긴다’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적인 참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⁵⁾ 이러한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향유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개인의 새로운 문화욕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에 또한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할 때, 각 지자체 차원의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지역민의 여건과 환경, 기반시설의 여건, 삶의 수준 등 문화예술 정책 환경의 다양함을 인정할 때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있을 때 이러한 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의 혜택들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유용한 인적·사회적 자원과 구체적인 문화예술 실태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명확한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예술정책은 주민들의 문화복지와 문화공공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베이비붐세대, 문화계에 불을 일으키다. 한겨레 21, 762호, 2009.5.29 기사에서 인용함.

제2절 최근의 문화예술정책 환경 고찰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여건환경 변화나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의 대두는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 즉, 문화예술은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 양상과 여건변화에 같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사회문화적·기술적 변화 환경속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각종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 생성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인과 업계, 학계, 언론, 홍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trend) 분석 및 전망’에서 제시된 최근 트렌드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 ‘1. 공감의 문화예술, 아픈 사회의 치유(힐링, healing), 2. 공동체(커뮤니티, community)와 예술, 함께 길을 찾다, 3. 문화예술, 공정한 시장을 요구하다, 4. 예술가로 먹고 살자: 예술인 복지와 협동조합의 본격화, 5. 한류의 새로운 이름, 케이-컬처(K-Culture)로 비상하다, 6. 여가소비의 세대별 다층화와 문화복지 화두의 부상, 7.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 8. 문화다양성,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부상하다, 9. 누리소통망(SNS)으로 놀기, 말하기, 뭉치기, 10. 노블리스 오블리주(위로부터의 나눔)에서 시티즌 오블리주(시민에 의한 나눔)로’

이를 통해 최근의 문화예술 트렌드 및 정책환경을 크게 나누어보면 커뮤니티 예술 또는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의 부각, 문화예술인 복지 확대, 문화향유권 및 문화복지 제고, 한류 및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확산, 지역 문화 발전 및 문화 다양성 제고 등을 말할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확대와 함께, 현실적으로 계층·지역간 문화격차가 상존하고 있어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한 친서민 문화복지 확대·개선이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의 활동과 제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 강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한류의 지속적인 유행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6) 양혜원·김혜인,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기본연구 2012-3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정거래 등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 요구 증대 및 한국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신문화와 인문학에 기초한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 추진과 쌍방향 문화교류·협력 확대 및 한류와 관련 산업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3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1. 중앙정부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기본방향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상에 반영된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 강화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제공 및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 세대별 수요 맞춤형 문화복지 제공이 큰 특징이다. 또한, 세대별로 맞춤형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확대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층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득·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환경 조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역문화자원 확충 및 제도 마련,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등 지역 문화경쟁력 강화 및 문화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 활성화 및 주민 밀착형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환경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여가카드, 문화예술강사 및 장애인생활지도자 파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창작 여건 향상 및 문화예술인 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후원을 확대하고, 순수예술·인디장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문화예술기관 운영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메세나 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개선 추진 등 지역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한편, 문화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직업 안정성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한국문화 진흥 및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한국학·한국어·전통문화·문화유산을 연계 활용하여 한국문화를 진흥하고, 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등 진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지역 연계 통합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문화유산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한국문화 진흥을 위한 정신문화 강조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시도문화재 보수정비비 국고보조금 전환(15년), 지역 국립박물관 특화육성, 권역별 수장고 신·증축 등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측면에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상(想像) 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예술과 콘텐츠 연계, 창업지원을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을 융복합형 창작 허브로 육성,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콘텐츠 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마련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타 시도 문화예술정책 연왕 및 기본 방향

다른 광역시도의 문화예술 정책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문화관광체육 부문에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 소프트파워 시책 지속 발굴로 부산다운 문화기반 마련, 청년문화, 예술인 복지, 소극장 등 대안 문화공간 지원을 통한 선택과 집중, 소통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자치 실현, 영화·영상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위한 선진환경 확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체

육여건 조성, 외국관광객 3백만명 유치 조기 달성, 2020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그 정책목표로 하여 다양한 업무를 계획·추진 중에 있다.

부산시는 생활속 문화향유기반 조성,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문화 육성, 아시아 영상·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시민친화형 체육환경 조성, 관광하기 좋은 매력있는 국제 관광도시 조성, 전시·컨벤션산업 선진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추진과제로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부산스토리텔링활성화 사업, 영화·영상산업 육성·지원 강화, 영상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대비, 2013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을 선정하였다.

위의 중점추진과제 이외에 문화예술정책 영역의 추진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국립아트센터·부산현대미술관·부산미디어아트벙커·UN평화기념관·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세부사업으로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민 독서 문화진흥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일상속 문화나눔 사업 확대 등을 전개한다. 전문 문화예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예술인을 위한 전문 창작 공간 조성·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청년문화 창작지원을 세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발굴·관리 사업과 부산역사문화 자원보존 사업을 추진하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전수교육관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사업,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정관박물관 건립, 유물관리 인프라 구축, 금정산성일원 다목적 공원 조성사업,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편찬, 향토사 기록정리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 육성을 위해서 축제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문화예술공연 세계화 사업을 역시 전개 중이다.

그리고 아시아 영상·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영상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영화의 전당 운영, 부산영상 후반 작업시설 운영,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운영 등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첨단 게임·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첨단

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첨단 3D 기술 허브 구축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 영화문화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영상산업 육성,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지정, 글로벌시장 전략적 진출 등의 계획을 추진 중 이다.

2) 경기도

경기도는 ‘도민에게 가슴을 활짝 여는 「문화가 있는 경기도」 실현’이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활용 활성화, 콘텐츠산업의 지역경제 파급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각종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13년 역점사업으로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통합브랜드 구축, 열린 박물관·미술관으로 지역문화 거점화, 경기도 다양성영화 메카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위의 역점사업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모셔오고 찾아가는 문화·여행 바우처,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소통과 힐링의 종교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사회통합 역할 확대지원, 도민의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 전통 종교문화 자원의 보존·발전 등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도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만들기, 역사·문화·생태와 함께하는 도보여행문화 정착 등의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한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콘텐츠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관심을 집중하여 이를 위해 차세대 콘텐츠산업 선도적 육성, 전략 콘텐츠산업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영화 및 영상산업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축제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K-POP 아레나 공연장 유치와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3)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문화성장 동력화, 도민 생활속의 문화복지 실

현,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구현, 특색있는 문화 창조산업 발굴·육성,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을 2013년 문화예술 부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지역문화 기반조성 및 문화성장 동력화’ 분야에는 전통문화 자원화 기반구축, 지역문화를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전통·건전문화 창조적 계승발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민 생활속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공성 확대(도립교향악단 운영, 도 지정예술단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충북문화관 운영), 문화재단을 통한 도민 행복 지수 향상(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전개,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및 웹진제작,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및 지원 확대)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 문화복지 실현으로 예술 향유기회 확대, 예술활동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국제 교류 지원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다.

‘특색있는 문화 창조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한류 영상문화산업기반 조성(세계영상위원회 총회 및 씨네포지움 지원, 제9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 한국영상산업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문화산업 육성으로 지역 브랜드 제고, 도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문화공간 확충 등의 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보호 및 가치창출, 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역량 강화(문화재별 맞춤형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문화재 활용을 통한 가치증대(문화유산 돌봄 및 효율적 활용,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지원, 문화재 신규 발굴·지정 확대, 문화재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등의 세부과제와 사업 등을 추진한다.

3. 정책 현황 시사점

중앙정부 및 다른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현황을 보면 그간 및 현경남도정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더하여 새로운 몇 가지 정책적 과제 추진이 필요

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먼저, 경남도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경남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 등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문화복지 제고 차원에서 강조하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기반환경 조성에 있어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 그간의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방향에 더하여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심이 필요하며, 지역의 폐 산업·군사시설 등 다양한 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전개도 필요하다.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에 대한 각 시군의 대응도 필요하여 각 지자체별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및 문화적 특성·여건에 부합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 정신문화의 진흥 정책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의 경남지역 선비문화 재조명·보급 및 선비문화 자원의 활용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남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에도 역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역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큰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경남의 경우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이 약하고 관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미미함이 사실이다. 타 시도 역시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주어짐을 볼 때 경남 역시 이 분야의 육성기반 마련과 진흥계획의 수립·실천이 필요하다.

타 광역시도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민의 향유기회 제고라는 유사한 정책적 지향점아래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문화예술 정책 추진현황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제고, 생활형 문화예술 강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역문화 창달 및 경쟁력 강화,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세계화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사업 계획을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부합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육성하여 중앙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강화 정책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타 시도의 주요 정책현황을 보면 경남도의 정책현황과 큰 차이가 없으며, 광역지자체간의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트렌드와 지향점의 유사성을 알 수 있다.

제3장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실태 및 정책 현황

제1절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기본현황

제2절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제3절 현황 시사점

제3장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실태 및 정책 현황

제1절 경남도 문화예술 관련 기본현황

1. 문화예술 기반 인프라 기본현황

경남지역의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의 소위 4대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2011.12 말 현재).⁷⁾ 먼저, 공공도서관은 모두 55개소로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31개소,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24개소이다. 박물관은 모두 51개소로 국·공립이 33개소, 사립이 13개소, 대학박물관이 5개소이다.

미술관의 경우 현재 7개소가 있으며, 사립이 4개 그리고 국·공립이 3개소이다. 문예회관은 18개소가 운영 중 이다. 문화원은 현재 전 시군에 걸쳐 20개소가 있다.

(표3-1)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기본현황(2011.12.말 현재)

시 군 구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원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경남(18)	151	55	31	24		51	33	13	5	7	3	4		18	20
창원시	28	13	10	3		6	3		3	3	2	1		3	3
진주시	14	6	5	1		5	4		1	1		1		1	1
통영시	9	4	3	1		1	1			2		2		1	1
사천시	5	2		2		1		1						1	1
김해시	16	7	5	2		6	4	1	1	1	1			1	1
밀양시	7	3	1	2		3	1	2							1
거제시	10	3	2	1		5	1	4						1	1
양산시	8	3	2	1		3		3						1	1
의령군	5	1		1		2	1	1						1	1
함안군	4	1		1		1	1							1	1
창녕군	5	2		2		2	2								1
고성군	8	2	1	1		4	4							1	1
남해군	5	2	1	1		1	1							1	1
하동군	6	1		1		3	3							1	1
산청군	8	1		1		5	5							1	1
함양군	3	1		1										1	1
거창군	5	2	1	1		1	1							1	1
합천군	5	1		1		2	1	1						1	1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에서 인용.

7)전국과의 비교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 자료를 이용함. 2013년 10월 말 현재는 공공도서관이 63개, 박물관 55개, 미술관 8개, 문예회관 19개, 문화원 20개소 임.

(표3-2) 인구 백만 명당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수

(단위:명·개소)

시·도	인구수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경남	3,308,765	45.64	16.62	15.41	2.12	5.44	6.04

상기 문화기반시설을 인구 백만 명당 시설 수로 보면, 경남의 경우 상기 문화시설 전체로 보면 45.64개로 나타난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16.62개소, 등록박물관의 경우 15.41개소, 미술관 2.12개소, 문예회관의 경우 5.44개소, 문화원 6.04개소이다. 참고로 전국의 경우 공공도서관 15.49개소, 등록박물관 12.91개소, 등록미술관 3.04개소, 문예회관 4.12개소, 그리고 문화원 4.51개소이다.

(표3-3) 문예회관 시도별 평균지표 현황

(단위:개소·명·일·명·%)

구분	시도	문예회관수	1관당 평균						
			직원수	전문직원수	공연일수	전시일수	유료관객수	총이용자수	유료관객율
지역 1	서울	16	53.13	34.13	213	109	71,185	358,439	19.86
	부산	12	52.67	30.42	225	208	75,794	150,587	50.33
	대구	9	17.29	9.00	139	254	39,047	99,807	39.12
	인천	7	25.56	10.89	177	195	27,871	214,032	13.02
	광주	6	18.83	16.17	128	109	26,263	121,976	21.53
	대전	2	27.50	18.50	159	26	62,801	154,911	40.54
	울산	4	21.25	10.75	140	395	32,377	216,945	14.92
	경기	28	23.11	9.75	167	120	30,442	130,240	23.37
	강원	17	6.71	1.94	110	110	7,128	59,102	12.06
	충북	13	3.69	1.62	95	55	6,906	62,405	11.07
	충남	16	7.56	2.88	136	89	9,126	62,297	14.65
	전북	17	12.59	4.94	120	114	18,482	84,646	21.83
	전남	17	12.35	2.88	121	160	13,612	66,062	20.60
	경북	24	10.92	3.50	131	84	22,281	84,981	26.22
	경남	18	17.82	8.82	97	133	28,217	123,176	22.91
	제주	3	15.75	2.75	107	82	25,449	86,735	29.34
	총계	209	19.46	9.57	142	128	28,022	122,385	22.90
지역 2	수도권	51	31.73	17.29	178	135	44,405	197,655	22.47
	지방	158	15.51	7.08	130	125	22,733	98,089	23.18
	계	209	19.46	9.57	142	128	28,022	122,385	22.90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에서 재구성.

이를 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광역시 평균보다는 많은 시설 인프라 현황을 보이지만, 다른 광역도 단위 지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내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의 실질적 수요에 바탕을 둔 철저한 시설 확충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확충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중요한 것이 기존시설의 운영 활성화 문제이다. 경남도내 문화기반시설 중 문예회관의 운영 현황을 전국과 비교해 보면 앞의 표3-3과 같다. 이를 보면, 지역 문예회관 1관당 공연일수는 97일로 전국 문예회관의 평균 142일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료관람율도 수도권 보다는 조금 높으나 지방 문예회관의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친다. 이처럼 경남지역 문예회관의 경우 조속히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수준이다.

(표3-4) 경남지역 지정문화재 시군별 현황(2013년 10월 말 현재)

구분 시군별	총 계 (건)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도 지 정 문 화 재					문화재자료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천 연 기 념 물	중 요 무 형 문 화 재	중 요 민 속 문 화 재	등록문화재	소 계	유 형 문 화 재	무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민 속 문 화 재	
계	1,672	298	10	151	51	12	45	17	12	37	782	478	33	250	21	555
창 원 시	101	13	0	7	4	0	1	1	0	10	61	26	4	31	0	17
진 주 시	162	24	1	17	2	0	3	1	0	4	68	43	9	15	1	66
통 영 시	62	22	1	3	4	1	5	6	2	4	26	14	1	11	0	10
사 천 시	44	6	0	1	1	0	2	2	0	0	27	7	3	16	1	11
김 해 시	63	13	0	2	9	0	2	0	0	0	29	17	1	11	0	21
밀 양 시	146	15	1	7	1	1	3	1	1	6	69	51	3	15	0	56
거 제 시	44	5	0	0	2	1	2	0	0	2	30	5	0	25	0	7
양 산 시	156	44	1	34	6	0	1	2	0	0	83	72	2	8	1	29
의 령 군	64	8	0	3	0	0	5	0	0	1	31	13	2	14	2	24
함 안 군	61	8	0	2	2	0	3	0	1	0	30	17	2	10	1	23
창 녕 군	102	22	2	11	4	0	1	2	2	1	35	23	0	11	1	44
고 성 군	70	10	0	4	2	0	2	2	0	1	33	18	0	12	3	26
남 해 군	84	12	0	2	2	3	5	0	0	1	32	18	1	12	1	39
하 동 군	79	15	1	9	2	0	3	0	0	0	37	26	0	11	0	27
산 청 군	95	14	0	11	3	0	0	0	0	3	41	23	0	15	3	37
함 양 군	100	18	0	6	3	3	4	0	2	1	53	40	1	10	2	28
거 창 군	84	12	0	6	1	2	1	0	2	3	38	24	4	6	4	31
합 천 군	155	37	3	26	3	1	2	0	2	0	59	41	0	17	1	59

한편, 경남지역에는 많은 문화자원이 산재하며, 이러한 문화자원 역시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대상이다. 지역 문화자원 중 가장 대표적인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0월 현재 지역의 지정문화재 수는 1,672건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98건, 등록문화재 37건, 도지정문화재 782건, 그리고 문화재자료 555건이다. 이밖에 많은 비지정문화유산이 산재하며, 특히 그중에, 전통사찰이 97건, 근대문화유산이 417건(2004.2 현재)이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정책이 도와 각 시군에서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다. 활용측면에서는 대부분 관광자원화나 역사교육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측면에서의 활용은 아직 많이 미진한 상태이다.

2. 문화예술 활동·향유 실태

1)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 실태

경남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실태 현황을 지난 2012년에 경남문화재단이 실시한 ‘2012 경남문화예술인 실태조사’⁸⁾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사에서는 각종 지원이 ‘풍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매우 풍족 0.6%, 다소 풍족 2.0%), ‘그저 그렇다’ 17.9%, ‘부족하다’ 79.5%(매우 부족 36.1%, 다소 부족 43.4%)로 나타나 부정적인 답이 많다. 5점 척도 만점시, 1.88점으로 지원정도가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중 무용은 1.72점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풍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매우 풍족 0.4%, 다소 풍족 2.1%), ‘그저 그렇다’ 22.5%, ‘부족하다’ 75.0%(매우 부족 33.3%, 다소 부족 41.7%)로 나타난다. 5점 척도 만점시, 1.94점으로 지원정도가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지원정도(1.88)와 비교해보면, 경남도의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나 경남도의 지원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매우 만족 12.5%, 다소 만족 40.1%), ‘그저 그렇다’ 26.1%, ‘만족하지 않는다’ 21.3%(매우 불만족 4.7%, 다소 불만족 16.6%)로

8)경남문화재단, 2012 경남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12 참고. 본 실태조사는 경남문화재단이 10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인 1,5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27일부터 10월 5일 까지 실시하였음.

나타난다. 5점 척도 만점시, 3.39점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창작·발표활동 지원’이 3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 20.2%, ‘직·간접적인 기초생계 지원’ 20.1%, ‘문화예술 전문교육 기회’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남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으로 버는 월평균 수입은 약 39만5천원 정도 된다(건축분야를 제외한 9개 분야의 수입은 34만4천원임). 문화예술활동으로 버는 월평균 수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 약85만원, ‘음악’ 약 69만원, ‘대중예술’ 약52만원, ‘영화’ 약46만원, ‘미술’ 약42만원, ‘연극’ 약37만원, ‘국악’ 약31만원, ‘무용’ 약28만원, ‘문학’ 약8만원, ‘사진’ 약5만원이다.

경남 문화예술인들의 전체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없음’이 16.5%, ‘100만원 이하’ 17.7%, ‘101~150만원’ 9.7%, ‘151~200만원’ 11.3%, ‘201~300만원’ 17.9%, ‘301만원 이상’ 25.4%, ‘응답거부’ 1.4%로 나타났다. 개인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약 186만원으로 산정된다(건축제외 경우 약 167만원). 개인 월평균 수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 약346만원, ‘사진’ 약216만원, ‘대중예술’ 약202만원, ‘문학’ 약191만원, ‘영화’ 약181만원, ‘미술’ 약160만원, ‘연극’ 약155만원, ‘무용’ 약155만원, ‘음악’ 약 146만원, ‘국악’ 약142만원이다.

경남 문화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율은, ‘건강보험’ 97.0%, ‘국민연금’ 66.5%, ‘산재보험’ 34.7%, ‘고용보험’ 34.2%로 나타난다. 건축분야를 제외하면 각각 96.6%, 63.2%, 29.0%, 28.7%로 조금 낮게 나타난다.

지난 1년 동안(2011년 9월~2012년 8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도·시·군)·문화예술위원회·기타 공공기관·기업(메세나 포함)·개인후원자로부터 창작지원금 수혜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관별 지원금 수혜비율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0.9%(13명), ‘지방자치단체’ 13.8%(207명), ‘문화예술위원회’ 3.5%(52명), ‘기타 공공기관’ 2.7%(41명), ‘기업’ 2.5%(38명), ‘개인 후원자’ 3.1%(47명)로 나타난다.

한편, “경남도내에서의 발표공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발표공간이 ‘풍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214명)(매우 풍족 1.5%, 다소 풍족 12.8%),

‘그저 그렇다’ 34.1%(511명), ‘부족하다’ 51.6%(775명)(매우 부족 14.5%, 다소 부족 37.1%)로 나타났다. 5점 척도 만점시, 2.50점으로 나타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경남도내 발표공간이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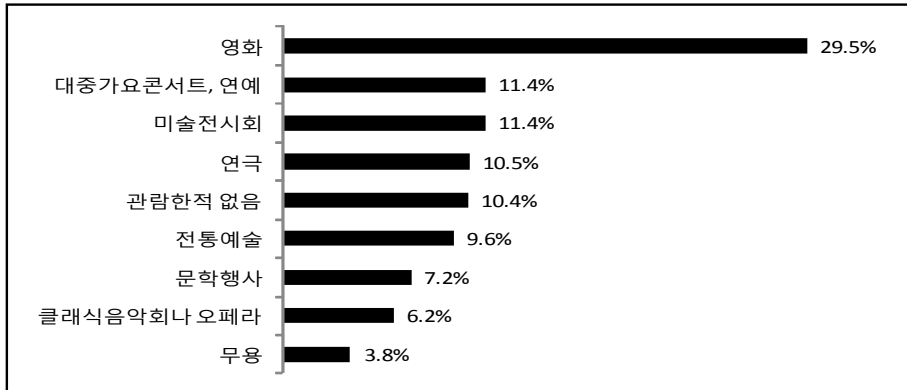
경남도내에서의 발표공간에 대해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응답자 1,286명을 상대로 향후 확충되기를 바라는 발표공간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소규모 장르별 전용공간’을 희망하는 비율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대규모 장르별 전용공간’ 27.1%,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25.3%, ‘중·대규모 복합문화공간’ 12.1%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중대규모의 복합문화공간 보다는 소규모 장르별 전용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남도내에서의 창작공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창작공간이 ‘풍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매우 풍족 0.9%, 다소 풍족 4.8%), ‘그저 그렇다’ 32.2%, ‘부족하다’ 62.1%(매우 부족 20.7%, 다소 부족 41.4%)로 나타난다. 5점 척도 만점시, 2.24점으로 나타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경남도내 창작공간 역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경남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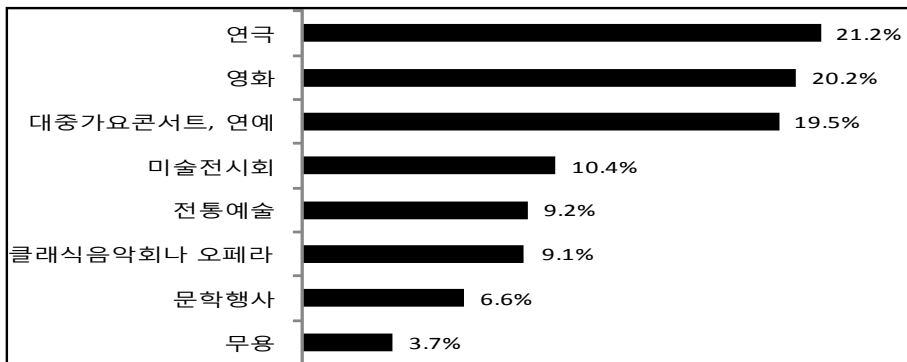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실시한 ‘경남도민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의식 설문조사’⁹⁾ 결과를 활용하여, 경남도민 문화향유 실태 현황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각종 예술행사’에 대해 도민에게 질문한 결과, 영화 관람이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중가요콘서트·연예와 미술전시회가 각각 11.4%로 다음 순을 차지하였다. 한편, 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응답의 10.4%나 되어 일부 지역민의 경우 문화향유 수준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관람한 예술행사를 보면, 20대(39.1%), 30대(36.1%), 40대(32.6%), 50대(23.6%)는 영화이며 60대는 전통예술(16.5%)로 나타난다.

9)본 조사는 경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실태와 활동 참여 실태 및 의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8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형식으로 실시되었음. 조사기간은 지난 2011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지역의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음. 한상우, 경남의 주민참여·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 방안, 중점연구 2011-18, 2001; 한상우, 경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와 시사점, 경남발전 120, 2012에서 발췌·인용함.



(그림3-1) 지난 1년 동안 관람한 예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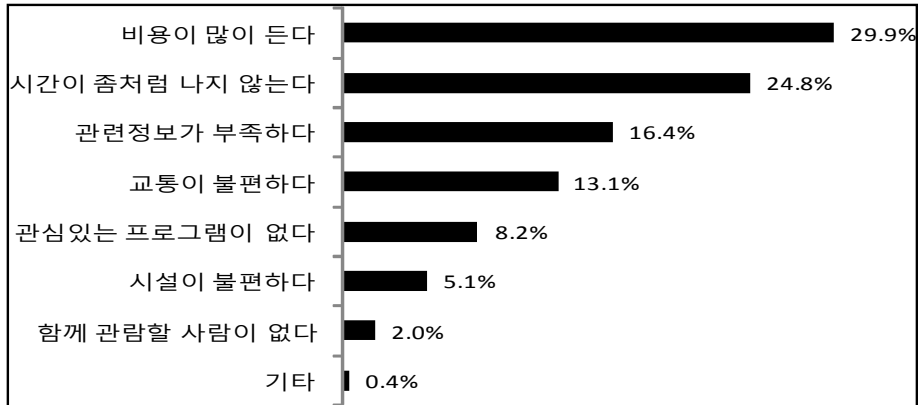
‘향후 1년 이내에 예술행사 관람 의향’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76.2%가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관람을 희망하는 예술행사’는 연극·영화·대중가요콘서트·연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영화(21.5%), 여자는 연극(23.1%)에 대한 관람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26.7%)·30대(25.5%)·40대(21.8%)는 연극관람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며, 50대는 영화·대중가요콘서트·연예(각각 20.3%), 60대 이상은 대중가요콘서트·연예(24.8%)를 관람하길 가장 많이 희망한다.



(그림3-2) 관람을 희망하는 예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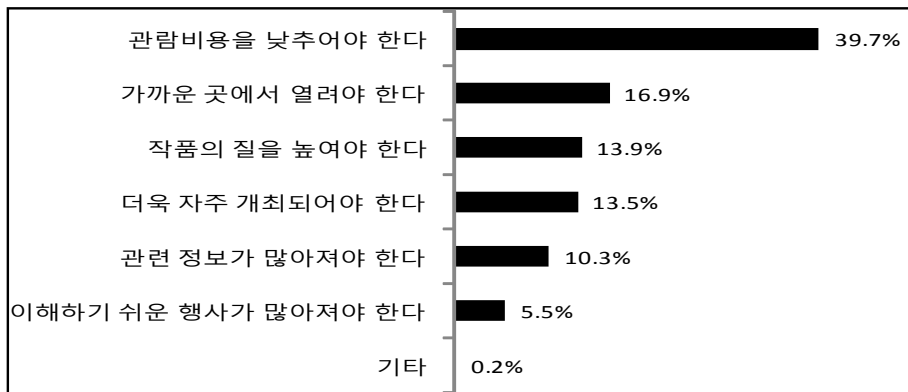
‘예술행사 관람 시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용이 많이 든다(29.9%)’, ‘시간이 없다(24.8%)’의 순으로 ‘비용’과 ‘시간’이 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시간이 나지 않는다(28.8%)’, 여성은 ‘비용이

많이 든다(37.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 분석결과는 20대(30.5%)·30대(41.1%)·40대(34.7%)는 ‘비용이 많이 든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교통이 불편하다(22.9%)’와 ‘시간이 나지 않는다(20.5%)’의 응답 순으로 나왔다.



(그림3-3) 예술행사 관람시 애로사항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공연 개최’, ‘작품의 질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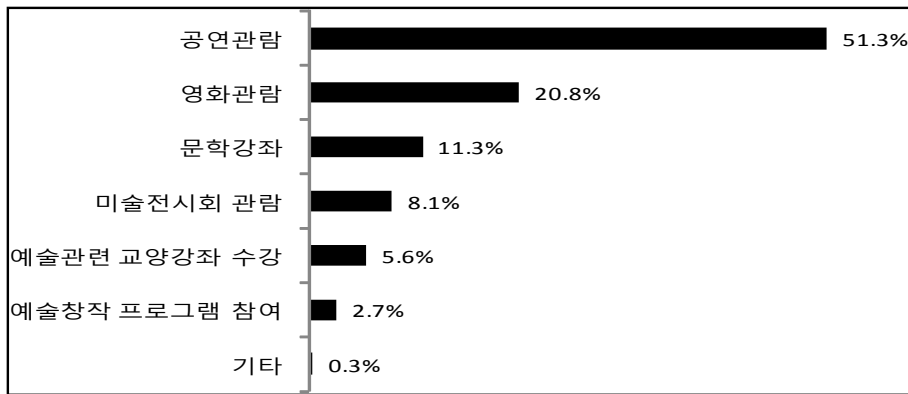


(그림3-4)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

시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42.8%, 군지역의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는 응답이 30.8%로 각각 가장 많았다. 이를

보면, 특히, 군지역의 경우 문화예술 행사 향유 기회에 있어서 일정부분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65.4%로, 경남도민 10명 중 약 6명 이상이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공연 관람’, ‘영화 관람’, ‘문학 강좌’의 순이며, 연령별 분석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연관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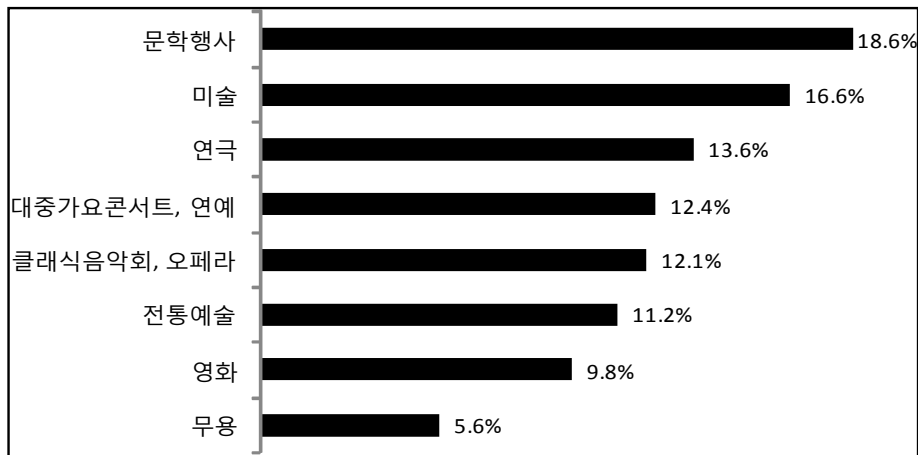


(그림3-5) 문화시설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지난 1년 동안 예술 창작·발표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연간 예술창작·발표활동 경험율은 14.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1.8%, 30대 12.8%, 40대 15.0%, 50대 20.2%, 60대 이상 14.9%가 예술 창작·발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50대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시지역 15.9%, 군지역이 10.6%이었다.

향후 1년 이내에 예술 창작·발표활동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24.3%, ‘없다’라는 응답이 75.7%로 나와 경남도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예술 창작·발표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향후 1년 이내에 예술 창작·발표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비율이 20대 15.4%, 30대 24.0%, 40대 27.4%, 50대 31.7%, 60대 이상 21.8%로 나타나 50대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하다가 60대에 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향후 1년 이내에 예술 창작·발표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시지역 23.4%, 군지역 28.5%로 군지역이 높다.

‘향후 1년 이내에 예술 창작·발표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창작·발표활동 예술분야는 문학행사 18.6%, 미술 16.6%, 연극 13.6%,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2.4%, 클래식음악회·오페라 12.1%, 전통예술 11.2%, 영화 9.8%, 무용 5.6%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대중가요콘서트·연예(21.4%)와 연극(21.4%), 30대는 연극(18.7%), 40대는 미술(17.1%), 50대는 문학행사(26.0%), 60대 이상은 문학행사(25.8%)가 1순위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에서는 문학행사 21.0%, 미술 17.6%, 연극 14.5% 등의 순으로 문학행사와 미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지역에서는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8.4%, 클래식음악회·오페라 17.1%, 전통예술 15.8%, 미술 13.2% 등의 순으로 대중가요콘서트·연예와 클래식음악회·오페라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3-6) 창작·발표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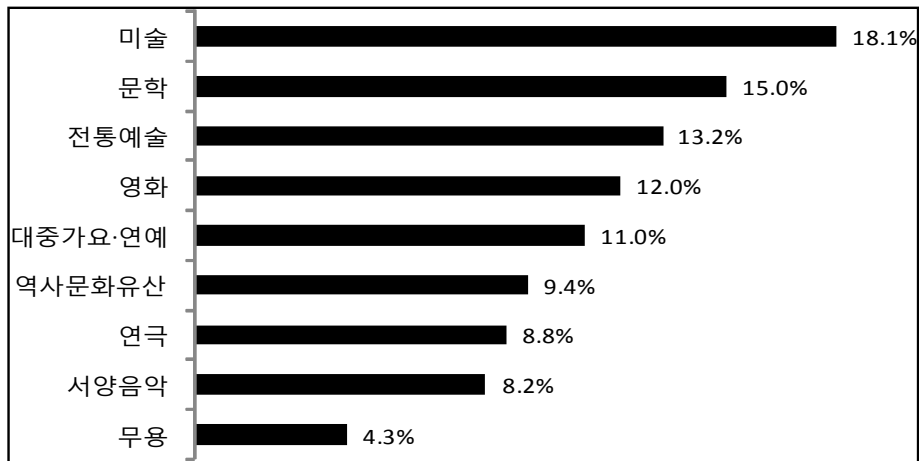
‘문화예술동호회나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 동호회나 클럽 참여율은 21.4%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3.3%, 30대 18.4%, 40대 25.4%, 50대 27.2%, 60대 이상 21.8%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0대의 문화예술 동호회나 클럽 참여율이 제일 높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시지역 21.9%, 군지역 19.3%가 문화예술 동호회나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강좌·강습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 교육·강좌·강습 수강 경험율은 26.2%로 나타났다. 연령

대별로 보면 20대 22.9%, 30대 27.1%, 40대 29.1%, 50대 28.7%, 60대 이상 22.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대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강좌·강습 수강 경험률이 제일 높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시지역 25.5%, 군지역 29.0%가 문화예술 관련 교육·강좌·강습 수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강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9.2%, ‘없다’는 응답이 60.8%로 나와 경남도민 10명 중 약 4명 정도가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강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강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20대 33.5%, 30대 38.9%, 40대 44.1%, 50대 45.0%, 60대 이상 33.3%로 나타나 50대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하다가 60대 이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강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시지역 37.6%, 군지역 46.6%로 군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강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3-7) 수강 희망 예술교육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강 의향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교육 종류는 미술 18.1%, 문학 15.0%, 전통예술 13.2%, 영화 12.0%, 대중가요·연예 11.0%, 역사문화유산 9.4%, 연극 8.8%, 서양음악 8.2%, 무용 4.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영화(18.6%), 30대는 영화(16.1%),

40대는 미술(16.8%), 50대는 문학(19.5%), 60대 이상은 미술(26.7%)이 1순위를 차지했다. 거주지역별로는 시지역에서는 미술(17.8%), 군지역에서도 미술(19.4%)이 1순위를 차지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활성화 또는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우 중요하다’ 20.4%, ‘중요하다’ 49.1%, ‘별로 중요하지 않다’ 14.5%, ‘전혀 중요하지 않다’ 3.1%, ‘잘 모르겠다’ 12.8%로 나타나 ‘중요하다(매우+중요)’ 69.5%, ‘중요하지 않다(전혀+별로)’ 17.6%, ‘잘 모르겠다’ 12.8%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요하다(매우+중요)’고 응답한 비율이 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에서 각각 71.3%·72.9%·76.2%·64.4%·61.6%로 나와 연령에 상관없이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50대·60대 이상 보다 20대·30대·40대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군지역(78.2%)이 시지역(67.6%) 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32.3%, 각종 지원사업 확대 25.0%,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23.7%, 문화시설 확충 18.9% 순으로 나타나, 도민들은 문화예술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에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령대별 분석결과 50대 이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각종 지원사업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32.4%, 각종 지원사업 확대 25.2%,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22.8%, 문화시설 확충 19.6% 순으로 나타났고, 군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32.1%, 주민참여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28.3%, 각종 지원사업 확대 23.9%, 문화시설 확충 15.8% 순이다. 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모두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보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2절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현황

1. 그간의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변화 분석

경남도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의 각종 문화예술 시책의 이행과 함께, 경남도의 정책적 특수상황과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문화환경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먼저, 지방자치가 실현된 1990년대 초에는 경남도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전통문화의 전승발전,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관련한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기본적으로 1990년대는 도민의 문화향수기회 제고, 전통문화의 전승보호,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큰 방향으로 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화창작 및 향토 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의 영향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 지역문화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관심 부각은 경남도정의 문화예술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예활동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데 큰 정책적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문화예술행사 국제교류 확대, 예술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들이 시행되었다.

한편,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영역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박물관 등록 및 건립지원, 가야문화권 유적정비사업,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등의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산업 육성 기조는 지역에서도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와 문화산업 관련 지원육성책 개발과 함께, 경남영상위원회 및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 관련 산업의 본격적인 진흥과 육성을 위한 기본토대

마련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2007년 10월에는 특히,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창립되어 그간의 관주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0년에 경남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경남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와, 첫번째 10년간은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기조에서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복지 실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기조와 지역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실천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2010년 7월 민선 5기 김두관도정의 출범은 경남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민선 5기 도정의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 정책기조는 기존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지속적 승계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계의 생태적 측면의 강조와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의 생활화에 큰 비중을 두었다. 즉, 새로운 도정의 많은 관심이 도민이 함께 잘살자는 번영1번지의 도정철학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직접적인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소위 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정책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았다.

이는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밀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문화정책으로, 기존의 문화예술정책 즉,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기반 시설 확대,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보급 등 “공급자중심”의 정책형태로부터 발전된 개념이다.

민선 5기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수를 향상시키려는 기존의 일반적인 전문문화예술 육성·지원정책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문화예술 활동이 일부 전문예술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직접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주민 모두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를 밀접하게 접하도록 생활 속의 문화환경을 제공함을 도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

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민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려는 소위 사회자본의 확대 노력과 문화예술 기본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성장 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간의 문화기반의 격차해소 및 문화향유의 기회 균등 제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특히, 지역의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내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확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

또한,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에 부응하고 지역의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동남권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경남 분소 설치·운영,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유치 확대 및 영상콘텐츠산업 지속적 육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역시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실현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신장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에 있어 실천 세부계획이나 사업안의 다양성 부족과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의도한 많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2. 연 경남도 문화예술정책 여건 및 현황

경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은 2012년 말 새로운 도정의 시작으로 인하여 작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에서의 큰 변화는 없지만 몇 가지 주요 사안이 대두되었다. 먼저, 새로운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을 도지사 공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경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예부흥 6대 공약과 관광육성 8대 공약을 추진하여 ‘문화가 있는 경남, 끝림이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제시되었다.

이중 문예부흥을 위한 6대 공약을 보면, 누리는 문화, 즐기는 문화, 자부심 있는 문화, 나누는 문화로 대변된다. 먼저, 누리는 문화로, 서울에 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예술 공연과 대중스타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시설 및 공연유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한다. 두 번째로, 즐기는 문화로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더 많은 공연기회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문화육성 정책과 재정지원을 확대 한다. 세

번째로, 자부심 있는 문화로, 진주개천예술제·거창국제연극제·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통영국제음악제·마산국제연극제 등 도내 대표적 문화예술축제를 경남의 문화적 자긍심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육성한다. 네 번째로, 나누는 문화 확산을 위한 메세나 운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경남문화재단을 문예부흥의 구심체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기금 목표액(1천억)을 조기에 적립하여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문화바우처사업 확대 등 경남문화재단을 실질적인 문화예술지원의 산실로 육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립 경남예술단’ 창단 추진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연극단·오페라단 등을 도내 주요 도시에 순차적으로 분산 창단하여 활동도 낮은 각 지역 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 측면의 공약은 지역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못지 않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수준을 제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정이 당당한 경남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일맥 통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공약사항은 도정 출범 후 문화예술정책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로 도지사 업무보고시 언급된 2013년 주요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 현안 과제로는 먼저 지역·계층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다.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는 확대되나 지역간·계층간·세대간 향유수준격차 존재하고 있어 개선 노력 필요함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도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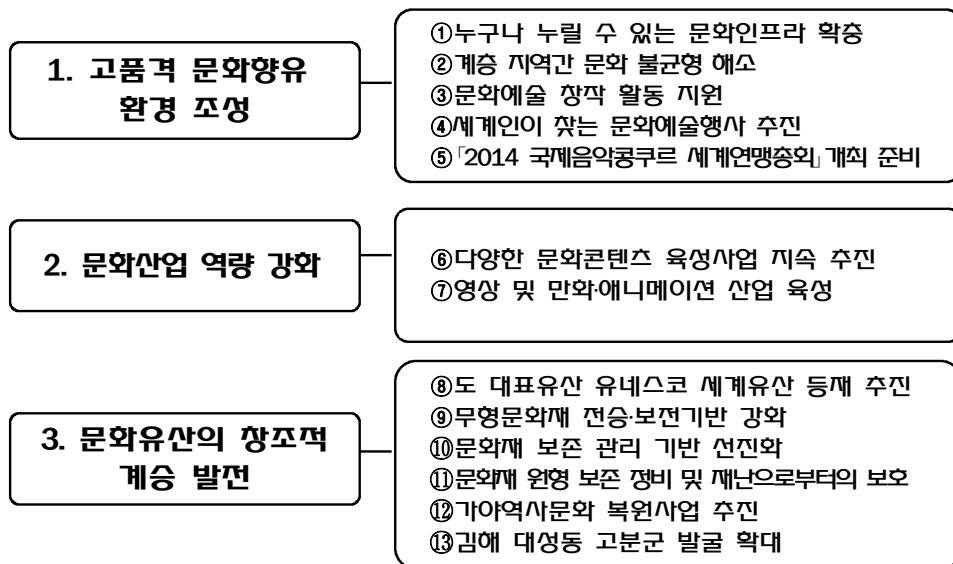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과제이다.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기능 확대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 및 체계적 전통문화 진흥기반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비중이 서울·수도권 대비 낮은 형편으로 지속적인 육성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야·불교·유교문화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 대표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는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보면 다음의 그림3-8과 같다. 먼저 고품격 문화향유 환경조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 및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 확대 및 소외지역 등 문화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문화산업 역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 영상 및 만화·애니메이션 산업과 전자출판 등에 주목할 예정이다.

끝으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기반을 강화하고, 가야역사유적 정비, 노후·훼손된 문화재, 전통사찰 등 주요 문화유적복원·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 및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림3-8) 경남도 문화예술 부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 (2013년도)

이러한 정책과제와 추진사업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의 충분한 마련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의 문화예술 예산은 올해도 전체 예

산 6조2077억2291만원의 0.57%인 356억3295만원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구성비)이 전국 9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년(0.57%)은 지난해(0.74%)보다도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더욱 줄어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참고로, 광역시의 경우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술예산 구성비는 부산이 1.83%, 대구 1.35%, 대전 3.4%로 대부분 1%를 넘고 있다.¹¹⁾ 이에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구체적 실현과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의 문화예술 재정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제3절 현황 시사점

지금까지, 경남도의 문화기반시설 기본현황 및 각종 실태조사, 그리고 경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의 그간의 변화과정과 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첫째, 도내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내의 문화예술의 향유와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전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광역시보다는 많은 시설 인프라 현황을 보이지만, 다른 도단위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적 열세를 보인다. 따라서 도내 각 시군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여전히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다만, 현재도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운영프로그램의 부족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 활용율이 크지 않음을 볼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 측면의 건립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 즉, 지역민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수요에 바탕을 둔 철저한 시설 확충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앞의 경남도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경남도내 문화예술 활동 발표공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 공급자인 지역

10)경남신문, 2013년 2월 4일 관련 기사 참고.

11)동기사 참고.

문화예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존의 많은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접근도 또는 시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간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 대규모 문화시설 위주의 문화시설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합한 공간 제공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확충되어야 하는 발표공간 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많은 분야에서 ‘소규모 장르별 전용공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경남도나 시군에서 문화시설 확충 계획수립시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다.

둘째,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문화예술활동 수입이나 4대 보험 가입 현황을 볼 때 지역 문화예술인이 어려운 창작여건에 처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볼 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와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확대에 도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역시 요구된다.

셋째, 주민들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를 통해서는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과 희망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먼저,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관람비용 낮추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이는 지역민의 예술행사 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람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군지역 거주민의 경우 가까운 곳에서 예술행사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시군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확충 및 공연 프로그램 강화, 접근성 확보를 통한 향유기회 제고 등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한다. 참고로 정부와 경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이를 위한 좋은 사업의 하나이다.

‘예술행사 관람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과 시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은 교통의 불편함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나 신체상의 불편함에 의해 자유로운 이동이나 원거리 여행에 제약에 있어 예술행사 관람이나 참여가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예술행사 관람시 비용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현재의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및 도 차원의 공연관람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 행사 관람의 경제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군지역 주민의 경우 시설 접근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의 기회가 적은 만큼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공연관람 지원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행사의 확대 운영이 요구된다.¹²⁾

넷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많은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상기의 실태조사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을 수강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주민의 26.2%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향후 1년 이내에 교육 수강 의향을 묻은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39.2%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참가 의향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역별 분석결과를 보면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 수강의향을 바로 교육 참가로 이끌 유도·지원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군지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회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69.5%로 많은 주민이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도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응답에서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를 우선 말하고 있다. 이를 보면, 향후 도나 각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해야 하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남도의 문화예술인의 현황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실태 및 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은 그간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문화예술계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관계, KCTI 문화 예술관광 동향분석, 제 2011-0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노력해왔다.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한 이래 주민 참여 또는 생활형 문화예술을 강조하면서 관련 사업을 전개한 점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 실천계획이 부족한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

경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대,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실천할 정책 세부계획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과제 및 세부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특정분야에 대한 강조와 정책적 포커스가 필요하기도 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 그 중요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계획은 최근 많이 강조되는 문화복지와 문화공공성 제고라는 기본적인 정책 지향 패러다임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공공성 제고는 큰 중요성을 가진다. 문화공공성이란 주민모두가 편하고 자유롭게 도내 문화시설과 문화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문화발전과 문화적 창작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함을 의미한다.¹³⁾ 이는 현 정부에 들어와 많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도의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반드시 참고해야할 의미있는 정책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13) 김창수,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IDI연구보고서 2013-13, 인천발전연구원, 2013의 15쪽 참고.

제4장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추진방안

제1절 정책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

제2절 주요 시책과 관련 추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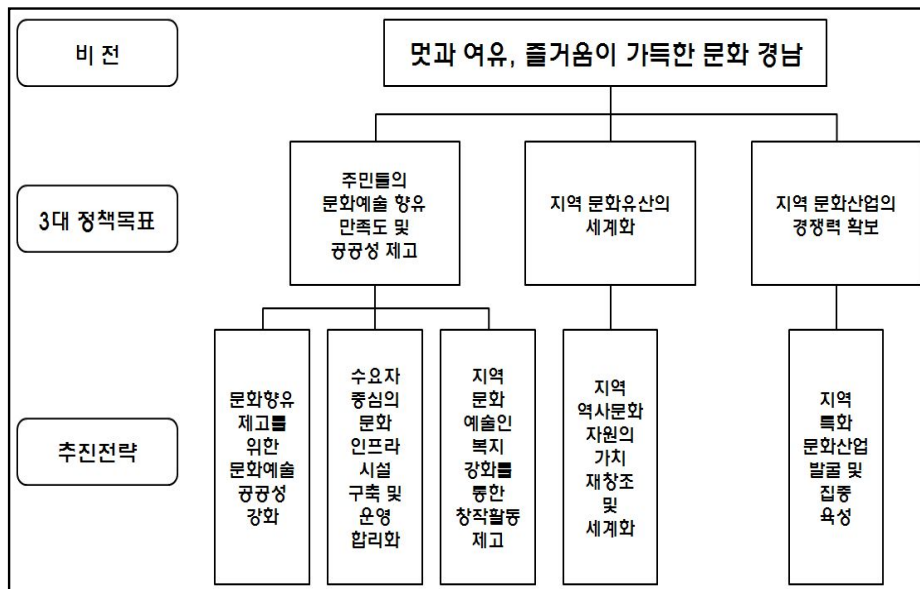
제4장 문화경남 향달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안

제1절 정책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

1. 정책비전·목표

현 도정의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 부분의 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가능하다. 먼저, 근래 중앙정부나 경남도차원에서 크게 강조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의 진흥, 즉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정책 비전을 ‘멋과 여유,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 경남’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3대 정책 목표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 및 공공성 제고,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화,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각기 설정한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세부방안은 다음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그림4-1)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정책 비전 및 3대 정책 목표,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상기의 ‘문화경남 창달’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 정책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설정 가능하다.

1)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경남주민들의 문화향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 활동과 다양한 기반 여건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에 접근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문화예술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토록 지원하여 문화예술 생태계의 공급 다양성과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2) 수요자 중심의 문화 인프라시설 구축 및 운영 합리화

수요자 중심의 각종 문화 인프라의 합리적인 구축과 운영 활성화는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공연활동 증대 등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활성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역 문화 인프라 시설의 경우, 복합 기능을 가지는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의 확충 그리고 소규모 전문 발표공간 확충 등 체계적인 수요자 중심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다양한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강화 등 운영의 합리화 전략이 필요하다.

3)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를 통한 창작활동 제고

지역 문화예술 창작의 큰 주체인 문화예술인의 복지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산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대에 관심을 주고 있어, 지역차원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를 강화하여 창작욕을 돋우고 창작여건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4)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 및 세계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산업적 측면에서 큰 가용자원인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통해 가치를 재창조하고, 그 가치를 널리 보급하고 홍보하여 세계화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브랜드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

5) 지역 특화 문화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서울이나 수도권과 비교할 때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을 인정하고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특화된 문화산업 영역을 집중 육성하여 비 수도권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함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경남지역 문화산업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자출판 등 지역의 기술 잠재력과 여건에서 충분히 발전 가능한 특화 문화산업 영역 발굴과 집중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주요 시책과 관련 추진 사업

1. 주민 참여형·생활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주민들이 항상 문화예술 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위 ‘문화공공성’ 제고를 위해 주민 참여형·생활형 문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의 창작능력 증진 및 이를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에 문화가 늘 함께하는 문화복지의 달성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는 그간의 전문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치중했던 문화예술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능동적인 문화 향유자로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방안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도시재생 및 도시 경관과 연계한 공공 미술프로젝트 실시, 아마추어 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경남형 엘 시스템아 보급 등 많은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2.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 개선 강화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 강구가 현안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재 지역 문화예술인의 어려운 창작 활동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지역의 문화예술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여건 조성을 위해 경남도차원의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전문예술가로서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며, 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급 및 각종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역의 기업메세나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남소재 기업 또는 경남과 연고가 있는 출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과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참여·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메세나활동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도차원의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3. 문화나눔 사업 확대

문화복지의 향상과 문화공공성 제고를 위해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의 확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의 경남도민 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향유에 있어서의 비용문제는 많은 주민들에게 여전히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수급 대상 및 사업 내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의 확대 추진 등 문화소외지역에 필요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한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각종 공연·전시활동 전개 강화가 필요하다.

4.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확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해서는 세대별·계층별로 요구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문화소비의 큰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가시간 선용과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줄 특화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들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대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노년층의 여가선용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꾀함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역시 큰 중요성을 가진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특히, 한국문화 그리고 경남 지역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들이 자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이를 지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제고함도 필요하다. 다문화문화예술관 건립,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5.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강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는 큰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내용의 다양성 확보와 주민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보완과 체계적인 운영에 큰 관심이 필요하다. 경남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추진, 베이비붐세대 및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강화, 경남도 문화예술교육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등의 다양한 관련 정책사업을 마련해야 한다.¹⁴⁾

6. 문화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확보 및 운영 활성화

경남도내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역 문예회관의 경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다. 전문인력의 보강 및 경영합리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기획·도입하여 문화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편, 주민생활문화시설의 경우 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양적인 측

14)한상우,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필요성 및 과제, 정책브리프 2013-06, 경남발전연구원, 2013.

면의 부족한 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지역 문화예술인이 원하는 문화예술 장르별 소규모 발표공간의 확충도 필요한 정책과제이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이나 폐산업 시설물 등의 재활용이나 전용 활용을 통한 주민 친화 문화예술공간 확보 사업 등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실시해야 한다.

7.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창의적 계승활용을 통한 세계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역시 우리 과거의 전통과 삶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이에 대한 보존과 전승·계승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전파함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 이미 정부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작성과 관련 사업 전개, 무형문화유산 진흥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실천하고 있다.

이에 먼저, 지역에서는 소중한 각종 무형문화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연중 상시 각종 공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공연장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배우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살아 있는 전통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남지역은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밀양아리랑과 지역 대표적인 오광대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그리고 지역의 여건현황을 볼 때 경남도에서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계승과 이를 통한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경남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조사·발굴,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 목록 작성 및 체계적인 학술 연구, 국내외 홍보 및 학술적 교류 강화, 지역 무형문화유산 계승 및 보급 확대 방안 강구(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존·진흥계획 수립),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및 보급 확대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인 한국 정신문화의 진흥정책에 대응하는 지역 정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부 추진해왔던 경남지역 남명 선비문화 재조명·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의 정신문화 확립과 정신문화 브랜드로서의 남명 선비문화 자원 활용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8. 체계적인 지역 문화유산 관리 체계 구축

지역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간 지역 문화유산의 관심대상이 과거 전통적이고 유형문화유산에 집중되었다면 근래 들어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된바와 같으며, 지역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그리고 다양한 활용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대문화유산 DB 구축과 근대문화유산의 예술 창작 공간화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소중한 농어업유산(遺産)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의 농경·어로행위로 형성된 농어업 유산자원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농어촌의 부가적 이익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경남지역에는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심의(제1차 위원회, '13.1.10) 대상에 오른 하동 녹차 시배지·최고 차나무와 남해의 죽방렴이 있으며, 남해의 다랑이 논, 고성외 둔병 농업 등 지역에 이미 잘 알려지거나 또는 아직 발굴되지 못한 지역 고유의 농어업유산이 존재한다. 향후 경남지역 전통자원의 활용 및 세계화 차원에서 지역 농어업유산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추진에 도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경남도와 해당 시군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9.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 분야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1% 정도로 매우 미약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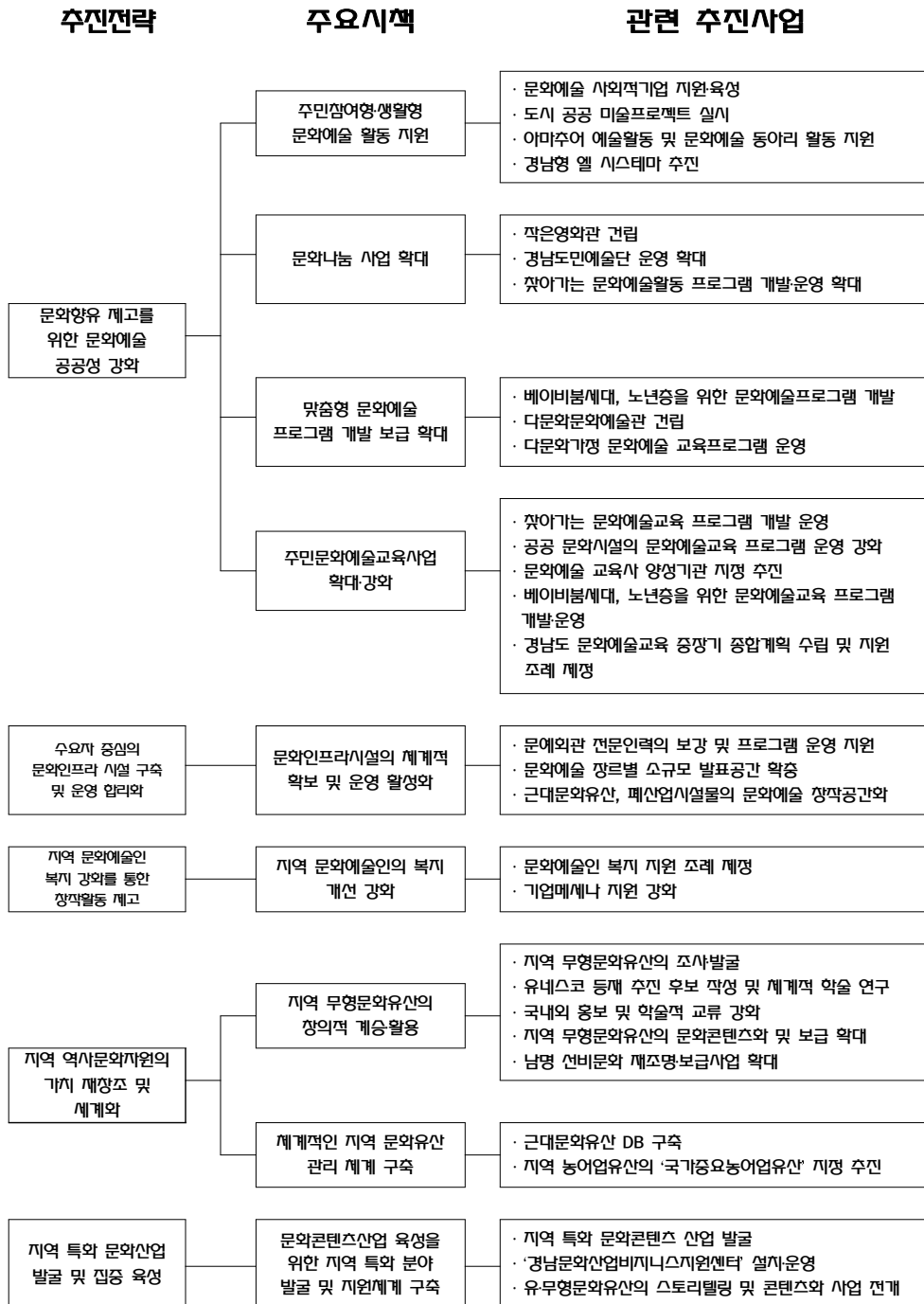
업기반을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의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볼 때 지역에서도 관심이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중 지역의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특정 영역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특화문화산업 영역을 발전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로, 현재 지역의 관련 산업계 현황을 보면, 민간차원에서 전자출판에 대한 관심과 진출 의사를 많이 보이고 있고 관련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화육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다. 만일, 전자출판의 특화 육성이 필요시에는 도차원에서 전자출판진흥계획 수립, 전자출판 인력 양성사업, 전자출판산업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계획하여 실천해야 한다.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경남도의 경우, 지역의 문화산업체를 지원하고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역할과 업무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특히, 지역 문화산업기업의 각종 기업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1인 기업 등 새로운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이나 관련 정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문화산업 관련 각종 기업 활동 및 신규 창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도차원의 전문시설 가칭 ‘경남문화산업비즈니스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 시설의 주요 기능은 인적자원 개발·교육 및 컨설팅 제공, 입주시설·장비 지원, 각종 기업 활동 및 창업 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되며, 이를 통해 경남지역 문화산업활동의 중심지이자 지역 문화산업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숨겨진 무형문화유산의 발굴 또는 지역 유형문화유산에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스토리텔링화 등을 통한 이야기거리 발굴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관광자원화·상품화하고 문화콘텐츠상품으로 잘 연계 발전시키는 기획과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4-2) 추진전략 및 주요시책별 관련 추진사업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경남도의 ‘문화경남 창달’이라는 도정 방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문화예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정책현황과 최근의 문화예술 트렌드, 그리고 도의 정책현황 및 도민 문화향유 실태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 비전과 전략, 주요시책과 과제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할 수 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정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분야로 향후 경남도의 중요한 정책분야로 충분히 간주되어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 지역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환경속에서 주민 상호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획일적이고 관주도의 하향적인 정책수립과 정책실천 보다는 지역민에게 필요하고 문화예술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융성을 제창하는 현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문화예술 수요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나 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 제고 사업은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의 삶과 창작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밀착형 사업으로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전략이나 주요시책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실천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경남도의 경우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지 않고는 문화예술정책의 올바른 집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을 중심으로, 경남도에 필요한 정책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남도민의 문화향유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일회성의 실태조사가 아닌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최신 현황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예술 관련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수립된 문화예술정책의 집행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와 문화예술인 지원조례 등 중요한 정책 집행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검토하여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경남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과거 일부 종합계획이나 로드맵이 수립된 적이 있으나 새로운 정책환경과 수요에 부합하기에는 어렵다. 조속히 관련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 부분 예산 확대 및 유관 기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문화예술 부분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도의 정책의 집행과 문화예술인 지원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경남문화재단, 2012 경남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12.
- 김창수,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IDI연구보고서 2013-13, 인천발전연구원, 2013.
- 남상문, 문화예술정책과 복지, 선인, 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12.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백서, 2001.
- 양혜원·김혜인,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기본연구 2012-3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시설 접근성과 문화향유의 관계, KCTI 문화 예술관광 동향분석, 제 2011-0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한도현 외,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 사업 효과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문화이모작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한상우,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필요성 및 과제, 정책브리프 2013-06, 경남발전연구원, 2013.
- _____, 경남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와 시사점, 경남발전 120, 2012.
- _____, 경남의 주민참여·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 방안, 중점연구 2011-18, 2001.
- Community Life. The American Prospect 35-42, 2003.
- Putnam, Robert. D. 나홀로 볼링, 정승현 역. 페이퍼로드, 2009.
- Putnam, Robert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Life. The American Prospect, 2003.
- 경남신문, 2013. 2월 4일 관련 기사.
- 한겨레 21, 762호, 베이비붐세대, 문화계에 봄을 일으키다, 2009년 5월 29일 기사.

문화경남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방안 연구

2013년 10월 25일 인쇄

2013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정 권

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우:641-728)

248 Yongji, Uichang, Changwon, Gyeongnam 641-728

Tel(055)239-0181. Fax(055)266-2079

Homepage : www.gndi.re.kr

ISBN 978-89-8351-473-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